

# 부산지역 제조업의 變遷과 향후 발전방안

정 홍 열\*

## The Development of Pusan's manufacturing industry : retrospects and prospects

*Jeong, Hong-Yul\**

### 〈목 차〉

Abstract	
I. 서론	IV. 실증분석
II. 대학마케팅의 이론적 배경	1. 표본의 특성
1. 대학마케팅의 정의와 특성	2. 가설의 검정
2. 대학마케팅의 위치	3. 요인분석결과
3. 대학마케팅 전략	4. 다중회귀분석
III. 연구설계	V. 결론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참고문헌
2. 연구대상변수와 설문지 작성	
3. 표본추출과 분석방법	

### Abstract

Pusan was considered the most industrialized region in Korea in the 1960s and early 1970. After that, however, it's economy continue to go backward and now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lagged regions in our country.

In this paper, I will review how this phenomena can take place and what factors cause this situation. I will also discuss what is reform measures of which to develop Pusan's future economy. But, due to the complication of economy, this paper can only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부교수

## I. 서론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대외무역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부산포에 왜관이 설립되고, 외국으로부터 소비물자와 근대적 공업제품이 대량으로 반입됨으로 국제 중계무역지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그 후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의 對韓 식민지 자원수탈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고, 해방 후 6.25 동란 때는 국가의 임시수도로서 국가의 운명과 함께 해 왔다.

1960년대에 들어서 국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지향적인 공업화 전략을 추진할 때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부산을 통해 수출되었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자재, 자본재들이 부산을 통해 수입됨으로써 한국 제 1의 항만도시로서 부산의 기능은 또 한번 더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부산지역의 工業도 섬유, 신발, 목재 등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1970년대 초에는 전국에서 공업화가 가장 앞선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부산지역 經濟는 실업률 전국 1위, 기업 부도율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 13위를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지역의 경제가 과거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 發展過程上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조망해 보는 것은 부산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만 부산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다루기 힘든 까닭에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제조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자료분석에는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와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 II. 戰後시대부터 경제발전 초기단계까지 부산경제의 발전

解放이전에 부산의 인구는 약 30여만 명에 이르렀지만, 1945년 해방이 되면서 6만 명이상이나 되던 부산거주 일본인이 자국으로 건너가 그해 부산인구는 2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곧 해외에 나가있던 300만 동포들이 귀환하고 그 중 일부가 釜山에 정착함으로써, 부산지역 인구는 1949년 약 48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1950년

에 발발한 6.25 동란으로 인해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해 인구가 80만 명으로 늘어났고, 주택난, 식수난, 식량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증으로 유출된 軍需物資, 구호물자, 밀수품 등을 거래하는 유통업이 주로 발전하였고, 제조업의 경우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섬유, 식품 등 경공업이 번성하였다 (高鍾煥, 琴性根 (1995:15-20))

그 후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서울로 옮겨갔고, 위축되었던 인천항이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戰爭 중 전국 총 수출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던 부산항의 수출비중이 격감하면서 부산경제는 한동안 위축되었다 (한국은행 (1955: 158-9)).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재건 정책에 의해 UNKRA(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원조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입지조건이 유리한 부산에 많은 공장 등이 설립되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 중심의 경공업부문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1962년에는 5.16 군사정권에 의해 1 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고, 부산은 과거 일제 시대 때 구축해 놓은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들과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등이 좋은 입지조건으로 작용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근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도 대

〈그림1〉 부산시 인구누적통계

년 도	인 구 수	년 도	인 구 수
1930	130,597	1946	362,920
1931	139,538	1947	438,505
1932	148,156	1948	501,890
1933	156,429	1949	470,750
1934	163,814	1950	-
1935	202,068	1951	844,134
1936	206,386	1952	850,192
1937	213,142	1953	827,570
1938	213,744	1954	840,180
1939	232,690	1955	1,049,363
1940	240,033	1956	1,002,391
1941	281,160	1957	1,019,427
1942	334,318	1958	1,044,581
1943	325,312	1959	1,087,243
1944	328,294	1960	1,163,671
1945	281,160	1961	1,163,518

자료: 부산통계연보(1968), 부산시

1) UNKRA자금은 주로 시멘트, 기계공장, 방직공장 등 기간산업 건설에 사용되었고 ICA자금은 1957년 화랑염 직, 부산내화, 건설화학, 부생산업, 1958년 경남모직, 동우정기, 평진실업, 한국염료, 부산방직 등 각종 중소기업 건설에 지원되었다. 이 기간 중 부산의 신설법인 업체현황을 보면 1955년 165개 업체, 1956년 203개 업체, 1957년 172개 업체가 신설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9: 908))

거 물려들었다. 그 후 1963년에는 부산이 直轄市로 승격하면서, 동래군에 속해 있었던 구포읍과 사상면, 북면, 기장면의 송정리를 편입하여 전국 인구의 5.0%, 1,360,630명을 가진 대도시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부산지역의 産業構成 비율을 보면 이미 大都市로써 전국의 평균 산업구성비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즉 당시 국가는 농림수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제조업비중은 극히 낮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산은 農林, 수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의 1/8 수준인 8.4%에 지나지 않았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은 82.0%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 있었다. 이러한 산업구조 형태는 그 후에도 지속되었지만, 1960년대 後半에 이르러 1차 산업 비중과 3차 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차 산업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갔다. 특히 1950년대 미국의 援助物資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되어왔던 신발, 섬유공업과 합판, 가발, 봉제공업 등 輕工業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기업의 數도 1964년 기준 5명 이상 고용업체수가 전국은 16,028개인데 부산은 1,768개로 전국대비 11.0%이었고, 10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수는 전국 361개인데 부산은 95개로 전국대비 26.3%를 차지해 부산지역의 기업 수 비중이 높았고 특히 대기업비중이 높았다. (최해군 (1997: 266))

<그림1> 부산시 인구누적통계

년 도	인 구	제 1차 산업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1963	1,360,630	8.4	63.0	9.6	8.7	82.0	28.3
1965	1,419,808	5.1	58.7	7.6	10.3	87.3	31.0
1967	1,463,325	5.7	55.2	20.7	12.8	73.6	32.0
1969	1,675,570	3.3	51.3	35.2	14.3	61.5	34.4

자료: 한국통계연감, 부산지역경제지표.(각년호)

제조업부문 생산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1963년 300억원에서 1969년에는 1천 783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수출실적은 이 보다 더 괄목한데 1962년 4백만 달러에서 1969년 1억 5천 7백만 달러로 무려 40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산지역의 비중이 1969년에는 25.2%까지 확대되며 황금시대를 구가하였다. 이때 최대 輸出品目은 합판과 피복이었으며 신발과 합성직물의 비중도 높았다. 당시의 이러한 경제상황에 힘입어 부산지역 1인당 주민소득도 1968년에는 281달러에 이르러, 당시 우리 나라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69달러에 비해 166%에 다다랐다.

제조업부문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sup>2)</sup>를 살펴 보면, 1963년부터 1969년 동안 전국의 제조업부문 종업원수와 생산액은 각각 12.1%, 30.1% 성장하였는데 부산의 경우 11.9%, 29.6% 성장하여 비슷한 성장률<sup>3)</sup>을 보이고 있

다. 업종별로는 1963년 기준 식료품이 부산지역 제조업부문의 종업원 수 8%, 생산액 22.6%를 차지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섬유부문은 종업원수 27%, 생산액 17%를 차지해 반대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준다. 그 외 고무<sup>4)</sup> 및 화학제품, 목재, 1차

〈표 3〉 196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 현황

(명, 백만원)

	1963		1966		1969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식료품	5,595	6,849	7,980	9,154	7,294	23,121
飲料品	1,148	1,015	1,636	2,255	1,345	2,561
煙草	-	-	-	-	-	-
纖維(섬유)	18,678	5,164	22,928	10,877	28,616	23,118
靴類, 의복류 및 裝身品	3,046	578	6,361	2,217	16,766	11,699
製林業 및 木製品	2,250	1,891	6,115	8,535	12,516	23,278
가구 및 裝置品	539	94	1,198	341	1,205	611
紙類 및 紙類제품	896	484	1,474	1,680	1,709	2,175
인쇄, 출판 및 同類似業	1,618	442	1,323	540	1,333	628
皮革 및 皮革製品	163	43	332	136	312	247
고무제품	8,961	3,349	14,470	6,870	13,471	12,428
화학제품	4,816	3,007	4,163	4,984	4,497	9,377
석유 및 石炭제품	1,074	845	1,642	2,162	2,153	5,969
土石 및 유리제품	2,742	424	3,559	1,291	4,724	2,551
제 1차 금속제품	2,992	2,228	3,462	5,533	8,669	19,387
금속제품	2,279	617	4,431	1,762	5,564	3,829
機械	1,583	337	3,272	1,383	3,552	2,259
電氣機械器具	2,507	653	5,268	3,869	11,024	10,365
운송용 기계기구	5,488	1,620	8,024	7,554	9,139	16,214
기타	2,621	614	5,121	2,976	7,133	8,490
계	68,996	30,253	102,759	74,119	141,022	178,307

자료: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각년호),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 2)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는全體 製造業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에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이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의 시작 년도를 1963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부산시가 당해 년도에 直轄市로 승격하며 각종 통계에서 경상남도와 분리, 집계되기 때문이다.
- 3) 이 논문에서 성장률은 지수성장률(exponential growth rate)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gamma = \ln(P_n/P_i)/n$ ,  $\gamma$  = 성장률,  $P_n$  = 최종년도 관측치,  $P_i$  = 초기 년도 관측치  $\ln$  = 자연로그,  $n$  = 분석기간 연수
- 4) 당시 신발 중 革製운동화는 靴類, 의복류, 장신품에, 고무신, 운동화, 고무장화는 고무제품에, 플라스틱 신발제품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국내 신발산업도 1973년 이전에는 총 고무화 중심의 생산이었으나 1973년 이후 미국의 비고무화류에 대한 쿼터적용이 폐지되고, 또 선진국의 신발생산이 감소하면서 布靴, 케미靴 등 고가품목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금속제품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업종별 실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화학제품 등은 전국대비 점유비중이 줄어든 반면, 靴類, 의복류, 제립업 및 목제품, 피혁제품, 전기기계기구, 1차 금속 등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립업 및 목제품은 1963년 전국대비 비중이 26%이던 것이

〈표 4〉 1960년대 생산액 기준 LQ와 변이 할당분석

	LQ			변이 할당분석 (1963-69)		
	1963	1966	196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식료품	2.00	1.41	1.53	36,153	-10,658	-9,223
음료수	0.48	0.45	0.26	5,359	-1,222	-2,590
연초	-	-	-	0	0	0
섬유	0.87	0.84	0.79	27,257	-5,522	-3,781
靴類, 의복류, 장신품	0.81	0.79	1.65	3,050	2,471	5,600
제립업 및 목제품	1.45	2.20	2.59	9,980	1,983	9,424
가구 및 장치품	0.44	0.63	0.60	496	-110	131
지류 및 지류제품	0.44	0.58	0.45	2,554	-803	-60
인쇄, 출판 및 동류이종	0.45	0.25	0.16	2,333	-821	-1,326
피혁 및 피혁제품	0.31	0.32	0.61	229	-139	114
고무제품	2.85	2.94	3.30	17,677	-9,603	1,004
화학제품	1.13	0.94	0.52	15,871	2,799	-12,300
석유 및 석탄제품	0.69	0.43	0.41	4,462	5,449	-4,787
토석 및 유리제품	0.31	0.33	0.28	2,241	380	-494
제1차 금속제품	1.30	1.24	1.82	11,760	819	4,580
금속제품	0.83	0.97	0.98	3,259	-432	384
기계	0.53	0.80	0.70	1,777	-294	438
전기기계기구	0.87	1.65	1.48	3,446	2,380	3,886
운송용기계기구	1.50	1.94	1.29	8,550	9,888	-3,843
기타	1.15	1.51	0.52	3,240	2,986	1,650
계	1.00	1.00	1.00	159,697	-449	-11,193

1969년에는 44%로 확대되었으며, 반면 油脂, 肥料, 塗料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은 20%에서 8.8%로 줄어들었다. 고무제품의 경우 1963년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무신 제조업의 경우 1,0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가 3개나 되어 국가 생산액에 50%를 차지하였고 1960년대 말로 갈수록 그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다. 섬유부문은 부산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生産額 기준으로 17%, 종업원수 기준으로 27%로 높았지만 전국 비중은 생산액 15.7%, 종업원수 17.1% 정도로 다소 낮으며, 이는 당시 부산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섬유제품이 많이 생산되었던 것을 의미한다.<sup>5)</sup>

5) 1963년 『광공업센서스』에 따르면 섬유부문은 종업원수 기준으로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가 전국비중 24.1%로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이 20.9%, 부산이 17.1%, 경기도가 12.7%를 기록하였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경북이 26.1%, 서울이 23.7%, 부산이 15.7%, 경기도는 12.2%로 부산이 3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부산지역 제조업부문의 특성을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sup>6)</sup>와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sup>7)</sup>을 통해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섬유산업의 경우 1960년대 부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진 업종이지만 입지계수가 1960년대 내내 1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섬유산업이 당시 국가전체 제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주요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무제품이나 식료품, 제림업 및 목제품, 제 1차 금속산업, 운송용 기계기구 등의 입지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 부산지역이 당시 特化産業을 많이 가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靴類, 의복류 부문은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특화 정도가 커지는 반면, 화학제품은 부산 지역내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특화계수도 弱化된다는 점이다. <표 4> 우측의 변화-할당분석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 준다. 당시 국가 제조업 부문 전체의 빠른 成長으로 인하여 국가성장요인들은 전부 양수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산업 구성요인을 보면 식료품, 고무제품, 섬유 등 전국적으로 성장세가 크지않은 산업에 부산지역의 의존도가 커짐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신 운송용 기계기구, 석유, 화학, 靴類, 의복류 등 국가전체의 비중이 확대되는 成長産業들은 양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쟁요인 계수를 보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화학제품 부문에서는 국가의 화학제

6) 立地係數(LQ)란 한 지역의 特定産業을 전국의 동일산업과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인 집중도를 측정하여 그 지역의 산업별 특화정도를 평가하는 技法으로써 특정지역(여기서는 j 지역) i 산업의 立地계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定義된다.

$$e_{ij} = j \text{ 지역 산업 } i \text{의 고용자 수 (혹은 생산액)}$$

$$e_j = j \text{ 지역의 전산업 고용자수 (혹은 생산액)}$$

$$E_i = \text{산업 } i \text{의 전국 고용자수 (혹은 전국 생산액)}$$

$$E = \text{전국의 총 고용자수 (혹은 총생산액)}$$

따라서 i 산업의 LQ가 1 보다 크면 그 지역이 전국 평균 비율을 상회하므로 그 산업에 特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은 地域의 (고용) 成長(=  $d_{ij}$ )을 크게 全國成長要因(=  $g_{ij}$ )와 産業構造要因(=  $g_{ij}$ ) 그리고 競爭要因(=  $C_{ij}$ ) 으로 나누고 있다.

$$d_{ij} = g_{ij} + m_{ij} + c_{ij}$$

$$d_{ij} = E'_{ij} - E_{ij}, g_{ij} = E_{ij} r_{\omega}, m_{ij} = E_{ij} (r_{io} - r_{\omega}), c_{ij} = E_{ij} (r_{ij} - r_{io})$$

$$E_{ij} = \text{기준년도 } j \text{ 지역 } i \text{ 산업의 고용인구}, E'_{ij} = \text{최종년도 } j \text{ 지역 } i \text{ 산업의 고용인구}$$

$$r_{ij} = \frac{E'_{ij} - E_{ij}}{E_{ij}} = \text{조사기간동안의 고용 성장률}, r_{\omega} = \text{조사기간동안의 국가 총고용 성장률}$$

$r_{io}$  = 조사기간동안 국가의 i 산업 고용 성장률

이때 국가 성장요인(national growth component)은 조사기간동안 j 지역의 i 산업이 동기간에 국가의 고용성장률과 같은 比率로 성장하였다면 얼마나 雇傭이 증가(감소) 하였는가를 나타내 준다. 산업구조요인(industrial mix component)은 j 지역과 국가간의 산업구조의 差異에 의해 야기되는 變化를 추정하는 값으로 만일 j 지역의 산업이 조사기간동안 全國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産業에 전문화 된 數가 평균 이상 일 때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요인(competitive component)은 j 지역과 전국간의 i 산업의 成長率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變化를 추정하는 값으로 j 지역 i 산업이 전국 i 산업 平均 雇傭成長率보다 빠른 成長率을 보이는 경우 이것은 지역의 총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반대로 i 산업이 低成長을 보일 경우에는 반대의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표 5〉 1960년대 종업원 수 기준 LQ와 변이 할당분석

	LQ			변이 할당분석 (1963-69)		
	1963	1966	196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식료품	0.91	1.23	0.67	5,944	-1,559	-2,687
음료수	0.41	0.62	0.30	1,220	-516	-507
연초	-	-	-	-	-	-
섬유	0.99	1.38	0.80	19,844	-2,601	-7,306
靴類, 의복류, 장신품	1.03	1.35	1.61	3,236	4,544	5,940
제립업 및 목제품	1.08	2.59	2.14	2,391	1,749	6,127
가구 및 장치품	0.59	1.07	0.59	573	93	0
지류 및 지류제품	0.47	0.82	0.57	952	-425	286
인쇄, 출판 및 동류이종	0.58	0.47	0.28	1,719	-543	-1,461
피혁 및 피혁제품	0.52	0.83	0.74	173	-114	90
고무제품	2.75	4.96	3.34	9,521	-7,282	2,271
화학제품	1.09	1.15	0.49	5,117	80	-5,516
석유 및 석탄제품	0.42	0.85	0.91	1,141	-1,208	1,146
도식 및 유리제품	0.68	0.87	0.56	2,913	133	-1,064
제1차 금속제품	1.32	1.50	1.75	3,179	432	2,066
금속제품	0.88	1.46	1.06	2,421	-34	898
기계	0.64	1.20	0.85	1,682	-577	864
전기기계기구	1.42	2.31	1.71	2,664	4,105	1,749
운송용기계기구	1.60	2.13	1.21	5,831	818	-2,998
기타	1.27	1.49	0.76	2,785	6,621	-4,894
계	1.00	1.46	1.00	73,305	3,717	-4,996

품 平均成長率에 미치지 못함으로 지역경쟁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식료품, 섬유, 석유제품, 운송용 기구부문에서도 당해 산업의 국가 전체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계수가 음수로 나타난다. 반면 제립업 및 목제품, 1차 금속제품, 靴類 및 의복류, 전기기계, 기구부문에서는 양의 계수로 나타나 지역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趨勢를 보여주고 있지만, 석유제품의 경우 경쟁요인 계수가 반대부호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석유제품 부문에 생산액 成長率은 당해 산업 국가평균 성장률을 밑돌지만 종사자 수 成長率은 상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부문에 부산지역 勞動生産性이 떨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에는 부산지역에 특화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다수 출현하며, 그 중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도 제립업 및 목제품, 靴類 및 의복류, 고무제품, 전기기계기구, 제 1차 금속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대표적 고용산업인 섬유는 경제개발 초기단계 때부터 지역 競爭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II. 1970년대 부산경제의 발전

1970년 들어 경부고속도로, 1973년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차례로 완공됨으로써 부산을 기점으로 한 남북간, 동서간의 승객과 화물수송망이 擴充되어 부산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부산의 북구가 신설되면서 김해군 대저읍과 가락, 명지면 일원이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인구 또한 46,682명이 편입되어 1970년대 말 처음으로 부산지역 인구가 300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되었다.

〈표 6〉 부산의 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수 전국대비

(% , 명)

년 도	인 구	제 1차 산업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1971	1,943,958	4.4	48.2	32.6	14.2	63.0	37.6
1973	2,071,950	3.0	49.8	32.6	16.3	64.4	34.0
1975	2,453,173	3.5	45.7	27.5	19.1	69.0	35.2
1977	2,697,947	3.7	41.7	44.6	22.4	51.7	35.9
1979	3,034,596	4.3	35.6	42.1	23.6	53.6	40.6

자료: 한국통계연감, 부산지역경제지표(각년호)

그러나 1970년대에 불어닥친 2차세계의 석유위기로 세계경기의 후퇴와 고물가, 국제수지의 악화 등 해외환경이 惡化됨으로써 급속히 성장하던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도 원자재 및 상품시장의 높은 海外依存度로 인해 이러한 해외환경 변화에 자유롭지 못하였다. 더구나 정부가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 부산 隣近地域에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동남해안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지만, 정작 부산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한다며 서울, 대구와 더불어 시내 신규공장설립을 억제하고,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시 重課稅를 부과하는 「성장관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공장, 학교, 도매시장 등 인구집중요인이 되는 시설의 설립이 제한되어 공업용지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인근 地方工團으로 부산소재공장들이 이전해 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산지역의 산업구성비율의 變化를 보면 제 1차 석유위기 때 부산의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1970년대 중반 2차 산업비중이 27.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국가의 성공적 경제회복에 힘입어 부산의 2차 산업 비중도 40%가 넘게 되었

다. 製造業부문의 종사자수와 생산액도 크게 증가하여 1970년에 비해 1979년에는 종사자수 2.26 배, 생산액은 10.8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增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전국대비 제조업 생산액 비중이 1970년 16.7%에서 1979년 13.2%로 줄어들었고, 종업원수는 그 반대로 15.9%에서 16.5%로 약간 늘어났다. 즉 부산의 제조업 종사자의 전국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생산액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위주로 산업이 構成되어 있어 생산액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수출 비중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의 공산품 수출 중 경공업 製品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중화학공업 製品의 수출비중은 전국의 경우 1972년 16%에서 1979년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부산은 13%에서 25%로 2배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1979년에 신발류, 의류, 직물, 원사, 합판 등이 주종이었으며 이 중 신발, 의류가 각각 20%씩을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수출액도 1971년 3억 달러를 넘어섰고, 1975년 12억 달러, 1979년 29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전국 수출비중은 1972년 29.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1975년 24.2%, 1979년에는 19.4%로 축소되었다.<sup>8)</sup>

〈표 7〉 197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 현황

(% , 명)

	1971		1975		1979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음,식료품 및 담배	8,236	38,952	14,134	147,903	18,678	362,422
섬유, 의복 및 가죽	41,782	48,722	88,390	286,699	110,612	701,062
나무 및 나무제품(가구)	12,087	40,033	17,128	109,497	19,773	299,054
종이, 인쇄 및 출판업	3,548	4,541	4,561	13,885	5,891	51,989
화학,석탄,석유, 고무 등	29,446	54,388	65,311	245,617	101,557	904,556
비금속광물제품	3,712	5,063	4,512	13,972	6,986	91,095
제 1차 금속제품	8,791	41,125	12,126	95,116	18,823	450,230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26,689	38,157	39,844	178,344	61,504	630,226
기타	3,025	1,323	4,667	9,307	7,036	37,021
	137,316	272,305	250,673	1,100,340	350,860	3,527,655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각년호), 경제기획원.

1970년대 들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방식이 개정되면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의 제조업부문 中分類가 20개에서 9개로 줄어들어 업종별로 자세한 분석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8) 1970년에는 공산품 수출 중 의류가 31.6%, 합판 28.7%, 신발류 6.7% 이었지만, 1976년에 의류 25.6%, 신발류 19.2%, 합판 13.0%, 1979년에 의류가 19.5%, 합판 9.4%, 신발류 20.1%로 신발수출이 확대되었다. 특히 1976년 의류수출은 전국의 72.6%, 신발은 82.9%, 합판은 66.4%를 차지하여 이들 부문의 부산지역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통계연보 (1980: 106))

었다. 그러나 당시 제조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치 않고, 통합된 산업을 다시 細分類하기가 어려워『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산업 분류를 그대로 準用한다.

업종별 전국대비 비중을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나무 및 나무제품 비중이 1971년 41.3%에서 1979년 34.7%로 줄어들었고, 제 1차 금속제품은 1971년 42%에서 1979년 19%로 더 급격히 줄어 中間財 부문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립 금속, 기계장비의 전국 비중이 1971년 19%이던 것이 1979년에는 9.9%로 감소하여 부산 지역 重工業 부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전국 대비 비중이 커진 부문은 신발이 포함된 화학, 고무부문과 비금속광물부문 정도이지만 그 비중 增加率이 거의 미미하여 부산지역 제조업 규모전체가 전국대비 감소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종업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趨勢를 나타낸다.

한편 부산지역내 업종별 구성비중 변화를 보면 생산액 기준으로 섬유, 의복은 1970년 18%에서 1979년 20%, 화학, 고무는 20%에서 26%로 증가하였지만, 음, 식료품은 15%에서 10%로 감소하였고 나무 및 나무제품도 14%에서 8%로 큰 폭 減少하였다. 특이한 점은 제 1차 금속제품과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부문의 전국대비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부산지역내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중공업부문이 대폭 擴張된 반면 부산지역내 제조업 구성비는 큰 변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학, 고무 부문의 비중이 커진 것은 화학부문 比重擴大가 아닌 신발부문 생산액 증가에 따른 고무부문 팽창에 기인한 것이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본 부산지역내 구성비중변화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화학, 고무 부문과 섬유, 의복 부문은 약간 증가했고 음, 식료품과 나무제품은 감소하였는데, 그 변동폭은 생산액 기준보다 적었다. 그러나 1979년 기준으로 섬유, 의복부문이 부산지역 종업원의 32%, 화학, 고무 부문이 29%를 차지하여 부산지역 제조업 고용이 이 두 업종에 偏重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과 〈표 9〉에는 197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 부문별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입지계수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나무제품과 제 1차 금속제품 같은 경우 이 기간동안 전국대비 점유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생산액 기준이나 종업원수 기준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特化産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화학, 고무부문의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입지계수가 1을 넘지 못하지만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2를 넘는다. 이는 부산의 代表的 산업인 신발이 이 부문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 식료품 산업이 생산액 기준보다 종업원 기준 입지계수가 더 작은 것은 이 산업이 裝置産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우측의 생산액 기준 변이-할당 분석을 보면 국가성장요인이 모두 양의계수로

〈표 8〉 1970년대 생산액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70-79)		
	1971	1975	197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및 담배	0.66	0.76	0.74	636,894	-247,333	-60,660
섬유, 의복 및 가죽	0.90	1.17	1.09	762,937	-21,902	-80,127
나무 및 나무제품	2.54	3.01	2.62	584,097	-247,347	-68,438
종이, 인쇄 및 출판업	0.32	0.33	0.39	65,851	-16,607	-720
화학, 석탄, 석유, 고무	0.88	0.87	1.14	863,849	53,864	-58,623
비금속광물	0.39	0.32	0.57	84,593	-9,890	11,939
제1차 금속제품	2.58	1.37	1.45	454,785	241,142	-269,633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1.18	1.05	0.76	734,084	507,209	-649,703
기타	0.26	0.62	0.74	33,693	-14,544	16,099
계	1.00	1.00	1.00	4,220,784	244,589	-1,159,867

나타나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전국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성요인을 보면 同期間동안 음, 식료품 및 나무제품 등 국가 平均成長率에도 미달되는 업종에 부산의 생산액 의존 비중이 높아 음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 있다. 대신 1970년대 정부의 중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 1차 금속제품이나 조립금속제품 등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 부문의 산업구성요인이 큰 양의 계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쟁요인은 비금속광물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계수로 나타나 1970년대 말부터 부산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산업이 차츰 없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종업원 기준으로 분석한 변이-할당분석의 경쟁요인 계수들은 생산액 기준 분석과 다른 모습을 보여 섬유, 의복, 가죽부품과 화학, 고무 부문이 양의 계수로 나타나 있다. 이는 섬유, 의복, 신발부문이 노동집약적 산업이어서 부산지역내 고용효과는 크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9〉 1970년대 종업원 수 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70-79)		
	1971	1975	197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및 담배	0.49	0.53	0.61	12,012	-7,198	5,629
섬유, 의복 및 가죽	0.97	0.99	1.04	60,936	-2,288	10,182
나무 및 나무제품	1.75	1.86	1.57	17,628	-9,358	-584
종이, 인쇄 및 출판업	0.41	0.37	0.38	5,175	-2,066	-765
화학, 석탄, 석유, 고무	1.91	2.03	2.39	42,945	2,026	27,140
비금속광물	0.39	0.42	0.42	5,414	-1,645	-494
제1차 금속제품	1.85	1.44	1.26	12,821	3,490	-6,279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1.08	0.76	0.62	38,924	40,551	-44,660
기타	0.24	0.46	0.57	4,412	-2,758	2,358
계	1.00	1.00	1.00	200,266	20,752	-7,474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中分類가 9개 업종으로 크게 분류되어 여러 업종이 한 분류 속에 混在해 있는 관계로 각 업종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 IV. 1980년대 부산경제의 발전

1980년대 전반기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산지역도 生産活動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 초 부산의 합판산업을 주도해 오던 동명목재, 태창목재의 도산과 덕산건설, 대왕제분, 남도금속 등 대형기업이 倒産하였으며, 1985년에는 세계 최대 신발생산업체인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됨으로써 부산지역 전체가 큰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 후 1985년 후반부터 시작된 國際油價, 금리, 換率의 3저 현상에 힘입어 어렵게나마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회를 잡는 듯하였다. 하지만 1987년 「6.29 선언」이후 억눌려 지냈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이슈로 전면으로 나서면서 노사분규가 연이었고, 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결국 그 동안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던 부산경제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후발 개도국 부상과 맞물려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수출부진과 함께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태화고무 마저도 도산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부도를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주민소득도 1980년대 중반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樹立時에도 부산과 서울을 계속하여 「개발역제도시」로 선정, 관리토록 함으로써 도심내 개발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의 시외이전이 계속 이어졌다.<sup>9)</sup> (대한민국정부 (1982: 30)). 부산시 인구도 1989년 김해시의 녹산, 가락면 일부, 그리고 의창군 철마면 일부를 부산시에 편입시킴으로써 3백 80만에 이르는 했지만 인구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었다.

1980년대 부산지역의 산업 구성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1차, 3차 산업의 비중 감소와 2차 산업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 있지만, 2차 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국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전국은 1980-89년 동안 제조업부문이 생산액 기준 15.7%, 종업원수 기준 4.8% 성장한 반면, 부산은 각각 11.3%, 2.0%를 기록하여 全國 평균성

9)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부산시가 강력히 반발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82년 계획확정시 적정수준까지 성장을 허용하는 「성장관리도시」로 규정을 완화하였고, 1986년 제2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성장관리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공업배치법상의 제한정비구역으로 여전히 묶여 있어 제조업체의 신·증설에 계속 제약을 받았다 (원희연 (1996: 542-543)).

〈표 10〉 부산의 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수 전국대비

(%, 명)

년 도	인 구	제 1차 산업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1981	3,249,643	5.0	34.2	36.7	21.3	58.3	44.5
1983	3,395,171	4.0	29.7	39.3	23.3	56.7	47.0
1985	3,514,798	4.0	24.9	38.4	24.4	57.6	50.6
1987	3,654,097	3.3	21.9	40.7	28.1	56.0	50.0
1989	3,857,312	2.5	19.5	41.6	28.2	55.1	52.3

자료: 한국통계연감, 부산지역경제지표, (각년호).

장률에 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제조업의 전국 비중도 1980년 생산액 기준 11.3%, 종업원수 기준 15.8%에서 1989년 각각 7.6%, 12.4%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나무 및 나무제품이 대표적 기업들의 도산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비중이 1981년 24.6%에서 1989년 8.8%로 急減 하였으며, 제 1차 금속도 1981년 13.6%에서 1985년 16.3%까지 증가했다가 1989년 다시 9.9%로 감소하였다. 다른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1980년대 말 부산지역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비중 10%를 넘는 부문은 전통적 특화산업인 섬유, 의복 부문과 화학, 고무 두 부문으로 축소되었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비슷해 1980년대 초에 비해 전국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하나도 없으며 전국 비중이 10% 넘는 것은 앞의 두 부문에 제 1차 금속제품 부문이 하나 더 추가된다.

한편 부산지역내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에 화학, 고무부문이 29%, 섬유, 의복 및 가죽부문이 21%를 차지해 여전히 이 두 부문이 부산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조립, 금속제품과 기계장비가 15%, 제 1차 금속제품이 14%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1980년 화학, 고무부문이 33%, 섬유, 의복이 32%로 두 부문이 65%를 차지해 생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集中度가 더 크며,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가 16%, 제 1차 금속은 5%에 불과해 이 부문에서 고용 흡수력이 낮다. 하지만 신발 부문의 확대에 따른 화학, 고무 부문의 편중현상은 1980년대 말로 갈수록 더 심화되어 1989년에는 부산지역 고용의 41%까지 흡수하고 있다.

이 사실에 기초해 볼 때 1980년대 부산의 제조업 구조는 계속하여 소비재 공업인 신발, 섬유, 의복부문 비중이 커지고, 자본재 공업은 위축되어 국가의 高附加價值 지향의 産業構造 개편과정에 발 맞추지 못한 채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산업인 신발공업과 섬유, 의복에 계속하여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상 문제와 전국 비중 감소추세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1970년대 30%대 가까이 올라갔던 부산지역 수출 비중은 1980년 18.2%, 1985년 13.5%, 1989년 12.1%로 계속하여 감소하였고, 절대액도 1988년 85.7억 달러를 정점으로 급속히 줄어들

〈표 11〉 198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 현황

(명, 백만원)

	1981		1985		1989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음, 식료품 및 담배	17,101	554,391	17,080	749,890	17,278	901,845
섬유, 의복 및 가죽	107,906	1,091,052	102,770	1,491,322	93,082	2,220,530
나무 및 나무제품(가구)	11,294	239,133	7,932	188,132	7,234	225,896
종이, 인쇄 및 출판업	6,944	106,690	6,139	128,446	7,066	247,668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등	114,760	1,432,041	139,714	2,251,548	157,869	3,579,498
비금속광물제품	5,608	112,123	5,288	136,241	3,941	238,702
제1차 금속제품	14,646	606,404	17,442	1,130,511	14,714	1,343,774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	51,129	903,642	62,140	1,392,939	73,192	2,372,070
기타	6,574	56,281	9,612	99,965	9,003	209,426
계	335,962	5,101,757	368,117	7,568,994	383,379	11,339,409

자료: 鑛工業 統計調查報告書 (각년호), 경제기획원

었다. 輸出商品에서도 여전히 경공업 제품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서의 構造的 問題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합판산업의 수출 비중이 1%대 이하로 떨어지며 빠르게 사양화 된 반면, 신발류, 의류, 직물, 원사 등의 수출 비중은 오히려 더 증가해 공산품 수출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발류는 수출비중이 계속 증가 1989년에는 공산품 수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sup>10)</sup>

〈표 12〉 과 〈표 13〉 좌측에는 생산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입지계수가 나

〈표 12〉 1980년대 생산액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70-79)		
	1981	1985	198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및 담배	0.82	0.81	0.77	1,358	-443	-453
섬유, 의복 및 가죽	1.21	1.29	1.41	2,690	-794	-545
나무 및 나무제품	2.26	1.51	1.16	688	-271	-413
종이, 인쇄 및 출판업	0.54	0.42	0.51	215	33	-70
화학, 석탄, 석유, 고무	1.04	1.23	1.68	3,716	-1,578	240
비금속광물	0.58	0.44	0.53	288	-38	-105
제1차 금속제품	1.23	1.66	1.30	1,748	-58	-912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0.84	0.66	0.58	1,858	2,161	-2,248
기타	0.68	0.83	1.05	146	53	-37
계	1.00	1.00	1.00	12,708	-936	-4,542

10) 신발공업은 부산 내에서도 지위가 높지만 전국 신발산업에서 점하는 위치가 가히 압도적이어서 1984년 신발공업 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및 수출액 모두 전국의 70%를 점하고 있다. 섬유공업도 전국에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고용이나 생산액 및 수출에 있어서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타나 있는데 생산액 기준으로 본 부산지역 특화산업은 섬유 및 의복, 나무제품, 화학 및 고무, 철강이 주종인 제 1차 금속산업 등이며 종업원수 기준으로도 섬유 및 의복, 화학, 고무, 제 1차 금속산업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나무 및 나무제품은 국가적으로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까닭에 여전히 생산액 기준으로는 특화산업으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말로 갈수록 특화계수가 작아지고 있으며,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신발이 포함된 화학, 고무 산업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특화산업으로 분류된 後 1980년대 들어서는 그 특화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

〈표 13〉 1980년대 종업원 수 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80-89)		
	1981	1985	198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및 담배	0.60	0.57	0.65	8,744	-5,795	-2,003
섬유, 의복 및 가죽	1.00	1.00	1.01	54,224	-35,036	-27,385
나무 및 나무제품	1.09	0.78	0.67	6,389	-2,521	-8,566
종이, 인쇄 및 출판업	0.46	0.38	0.41	3,231	-21	-2,178
화학, 석탄, 석유, 고무	2.67	2.89	2.98	55,896	8,007	-10,437
비금속광물	0.37	0.32	0.25	2,868	-1,157	-3,126
제1차 금속제품	1.02	1.17	1.01	8,763	-3,671	-6,745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0.57	0.54	0.52	27,110	29,709	-34,263
기타	0.51	0.66	0.67	3,606	47	-1,386
계	1.00	1.00	1.00	170,829	-10,438	-96,089

〈표 12〉 우측의 변이-할당 분석 결과를 보면 1980년대 국가 전체의 제조업 성장세로 국가성장요인들의 계수가 전부 양수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산업구성요인을 보면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나 인쇄, 출판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국가 제조업 평균成長率을 하회함으로써 대부분 음의 계수로 나타나 있고 특히 화학, 고무부문의 감소폭이 큰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부산지역의 업종별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쟁요인은 신발이 포함된 화학, 고무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계수로 나타나 부산지역의 제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重工業인 조립금속, 기계장비제품은 국가적으로 성장지속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는 큰 음수로 나타나, 부산지역 중공업 부문이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있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변이-할당 분석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화학, 고무제품에 산업구성요인이 양으로 나타나 있는 점인데, 이는 조사기간동안 부산지역의 이 부문 종업원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도 일부 기인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경쟁요인 계수는 오히려 음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화학, 석유부문이 빠르게 成長하였지만 부산지역은 신발부문을 제외하고는 화학, 석유부문의 성장이 크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LQ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대



표적 특화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 의복과 나무, 화학 및 고무, 1차 금속산업들이 변이-할당분석에서는 지역경제력에 우위를 보여주고 못함으로 부산지역 제조업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음을 암시해 준다.

## V. 최근의 부산경제의 발전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는 지역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도록 되었다. 부산도 1995년 1월부터 부산直轄市에서 부산廣域市로 이름을 바꾸고 경상남도 양산군의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을 기장군으로 하여 부산에 편입시켰다. 이때 18,164명이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시 인구가 1995년 3백 89만 명으로 늘어나 부산시 역사상 최고 많은 인구수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김해시, 양산시 등 근교지역이 개발되면서 그에 따른 인구 전출로 1995년 이후 절대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14〉 부산의 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수 전국대비

(% , 명)

년 도	인 구	제 1차 산업		제 2차 산업		제 3차 산업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부 산	전 국
1991	3,892,820	1.7	16.5	37.3	27.2	61.0	56.3
1993	3,868,429	2.1	14.7	30.8	24.5	67.1	60.8
1995	3,892,972	2.3	12.4	26.5	23.6	71.2	64.0
1997	3,865,114	2.1	11.3	23.7	21.4	74.2	67.3
1999	3,831,454	2.6	11.6	24.0	19.9	73.4	68.6

자료: 한국통계연감, 부산지역경제지표, (각년호).

제조업부문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도 후발 개도국가들이 저임금을 무기로 경공업부문을 계속 확장함에 따라 부산지역의 신발, 의류, 직물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 신발생산업체인 〈삼화〉, 〈국제〉, 〈진양〉, 〈태화〉 등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라인 감축 혹은 인근지역으로 이전해 갔다. 더구나 부산지역 산업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유치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19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함으로써 부산지역 제조업 부흥을 열망하는 부산시민들에게 또 한번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악화로 부산의 제조업부문이 급속히 위축되어 2차 산업 구성비가 20%대로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 비중과 비슷해졌고, 기업의 시외이전도 늘어나 1990년대 들어서만 총 1,262개 업체, 40,217명의 종업원이 부산을 떠났다.

중소기업의 比重이 높아지고 대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부산 제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업체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1970년 93.8%이던 것이 1999년에는 99.6%로 증대하였고, 종업원수 기준으로도 동기간동안 37.9%에서 84.9%, 생산액기준으로 25.4%에서 75.6%로 늘어나 부산지역의 제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제조업 부문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는 1991년 산업분류방식이 또 다시 개정되면서 이전의 중분류 9개 업종에서 23개 업종으로 대폭 늘어나 과거보다는 자세히 業種別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부문은 축소가 두드러져 생산액 기준 전국비중이 1991년 6.6%에서 1999년에는 3.8%로 줄어들었고, 종업원 수 기준으로도 10.7%에서 7.4%로 감소되었다. 전국 비중이 10%가 넘는 산업도 생산액 기준으로 1991년 가죽, 신발(44%), 의복 및 모피(12.1%), 목재 및 나무(13%), 제 1차 금속(10.9%), 기타 운송장비(12.1%), 재생재료, 가공처리(15.1%) 등 6개 품목에서 1999년에는 가죽 및 신발(26.9%) 한 업종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 부문도 전국 대비 비중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1991년 의복 및 모피(14.7%), 가죽, 신발(44%), 목재 및 나무(11.7%), 고무 및 플라스틱(10.7%), 제 1차 금속(12.4%), 기타 기계, 장비(10%), 기타 운송장비(15.5%) 등 7개 업종에서 1999년에는 가죽, 신발(40.4%), 의복 및 모피(16.3%), 제 1차 금속 (10.1%)등 3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부산지역내 생산액 기준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1991년 가죽, 신발이 21%, 제 1차 금속이 14%, 기타기계가 9%, 섬유 5%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가죽 및 신발이 35%, 의복 및 모피가 10%, 기타 기계장비 11%, 섬유가 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차 금속 부문은 5%를 차지해 생산액 비중과 연관하여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죽 및 신발부문의 경우 신발생산의 急減에 영향을 받아 1999년에는 생산액 기준 8%, 종업원수 기준 12%로 급속히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섬유부문과 조립금속, 기타 운송장비 등의 비중이 일제히 증가하였다. 수출부문도 절대액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전국대비 부산지역 수출비중이 1991년 10.5 %에서 1995년 5.2%, 1999년 3.6%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 수출실적을 보면 1999년에 섬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발의 경우 1995년까지는 1위, 1997년까지는 2위였다가 그 후론 철강산업에 그 자리를 내주고 3위로 하락하였다. 4위 업종은 1996년까지는 선박이었지만 1997년부터는 근소한 차로 고무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 7, 80년대와 같이 수출비중이 한, 두 업종에 편중되어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새로운 특징인데 1999년 공산품 수출 중 섬유가 16.5%, 철강이 13.3%, 신발이 10.8%, 고무가 7.8%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他業種이 증가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동안 절대우위를 보이던 신발과 섬유업종의 수출이 큰

〈표 15〉 1990년대 부산지역 제조업 현황

(명, 백만원)

	1991		1995		1999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음, 식료품	15,671	1,064,743	15,096	1,359,403	12,060	1,413,889
담 배	-	-	-	-	-	-
섬유제품	27,040	1,014,474	24,193	1,627,853	19,312	1,784,247
의복 및 모피	31,265	719,107	25,142	867,657	23,384	740,347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09,755	2,923,735	34,766	1,534,818	22,111	1,447,405
목재 및 나무	5,013	287,132	4,466	360,200	2,606	296,37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504	170,895	3,112	239,973	2,409	218,56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품	2,716	111,921	3,268	218,592	2,879	222,580
코크스, 석유정제 품 및 핵연료	675	146,735	517	160,738	337	116,246
화합물 및 화학 제품	7,046	582,307	5,632	748,620	4,429	787,031
고무 및 플라스 틱	13,454	643,209	10,648	659,880	8,692	704,803
비금속 광물제품	3,167	275,753	3,382	403,604	1,899	339,290
제 1차 금속산업	14,978	1,983,616	12,618	2,577,553	10,509	2,540,405
조립금속제품	14,933	652,860	22,074	1,506,616	16,367	1,436,558
기타기계, 장비	26,860	1,239,009	29,441	2,147,721	20,930	1,902,322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84	5,714	370	11,109	235	12,80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047	208,304	7,700	529,124	7,553	885,75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518	125,653	3,479	220,333	4,446	330,15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1,663	49,238	1,983	109,701	1,886	136,944
자동차, 트레일러	7,089	564,663	7,101	772,430	7,743	718,371
기타운송장비	10,613	670,832	8,892	1,011,534	9,054	1,704,985
가구 및 기타	8,605	258,993	8,486	380,224	6,641	421,752
재생 재료 가공 처리업	123	4,918	200	40,292	130	30,490
계	312,819	13,703,811	232,566	17,487,975	185,612	18,191,324

자료: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각년호), 경제기획원.

폭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16〉의 입지계수를 보면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의 中分類 항목 세분으로 인해 부산지역에 1990년대 특화산업이 다수 출현한다.

생산액 기준으로 가죽 및 신발 산업을 선두로 섬유 및 의복, 목재 및 나무, 제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운송장비, 재생재료 등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된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입지계수에서도 다소 수치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변이-할당 분석의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성장요인이 정반대부호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조업 생산액이 1997년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분석 시작 년도인 1991년에 비해 1999년에는 증가하였지만, 종업원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失業率 급증으로 1999년 종업원수가 오히려 1991년 종업원수 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업종별 산업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생산액이 크게 감소한 가죽, 신발 부문에 부산경제의 依存度가 커 부산지역 산업구성요인 계수 감소 총 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분류된 의복 및 모피, 목재 및 나무, 제 1차 금속, 조립금속, 기타기계장비 등의 산업이 전국 제조업 평균 成長率에도 못 미쳐 산업구조요인이 큰 음의 계수로 나타나 있다. 지역의 경쟁요인도 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데,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분류된 업종들 중 섬유와 조립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業種들은 계수 모두가 음수로 나타나 부산지역 特化産業들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표 16〉 1990년대 생산액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90-99)		
	1991	1995	199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0.93	1.07	1.03	1,418	-237	-833
담배	-	-	-	-	-	-
섬유	1.06	1.72	1.89	1,351	-598	17
의복 및 모피	1.82	1.67	2.49	958	-725	-212
가죽, 가방, 마구, 신발	6.61	5.88	7.10	3,895	-4,452	-919
목재 및 나무	2.02	2.41	2.53	385	-259	-119
펄프, 종이	0.49	0.52	0.49	228	-12	-168
출판, 인쇄, 기록매체	0.53	0.66	0.70	149	33	-71
코크스, 석유, 핵연료	0.23	0.20	0.10	195	126	-352
화합물, 제품	0.48	0.47	0.45	776	129	-700
고무, 플라스틱	1.25	0.98	0.96	857	118	-914
비금속광물	0.41	0.55	0.57	367	-217	-86
제1차 금속	1.64	1.73	1.71	2,643	-339	-1,747
조립금속	1.14	1.85	2.09	870	-139	53
기타 기계, 장비	1.05	1.45	1.53	1,651	-587	-400
사무, 계산, 회계	0.06	0.04	0.02	8	59	-59
기타 전기기계, 변환	0.47	0.88	1.24	278	112	288
영상, 음향, 통신	0.10	0.10	0.14	167	107	-70
의료, 광학, 시계	0.36	0.60	0.81	66	-9	31
자동차, 트레일러	0.48	0.46	0.41	752	139	-738
기타 운송장비	1.82	1.91	2.49	894	623	-483
가구 및 기타	0.77	1.12	1.51	345	-228	45
재생재료, 가공처리	2.26	1.85	1.08	7	101	-82
계	1.00	1.00	1.00	18,259	-6,255	-7,519

말해준다. 또한 양의 계수를 기록한 섬유나 조립금속산업의 경우도 수치가 크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후반 들어 특화계수가 커지는 전기제품산업의 지역경쟁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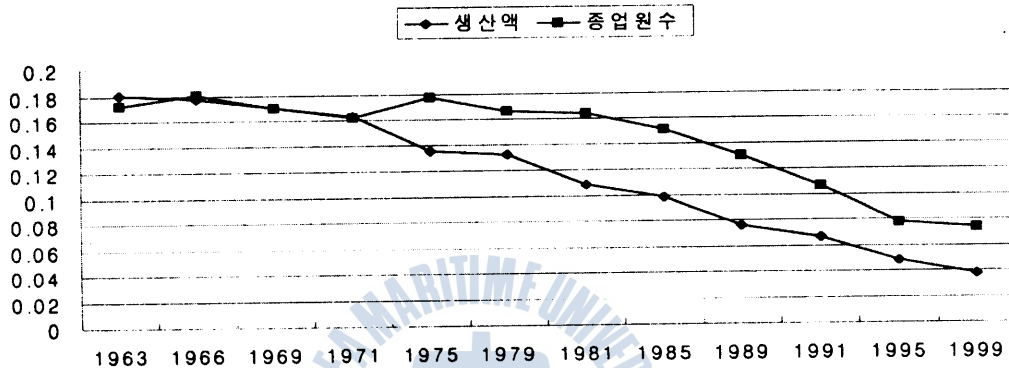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변이-할당 분석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국가성장요인계수모두가 음수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구성요인을 보면 섬유 및 의복, 가죽, 신발 등 부산의 특화산업들이 생산액 기준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있다. 그러나 조립금속과 기타 기계장비부문은 생산액 기준과는 달리 전국 제조업 평균 고용 성장률을 웃돌아 양수로 나타나 있다. 경쟁요인도 특화계수가 높은 가죽, 신발부문에 음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 이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부산의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부문도 당해 산업의 전국 평균성장률을 밑돌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섬유와 의복 부문에서는 아직도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수 크기를 보아 그 기여도는 크지 않다.

〈표 17〉 1990년대 종업원 수 기준 LQ와 변이할당분석

	LQ			변이할당분석 (1990-99)		
	1991	1995	1999	국가	산업구성	경쟁
음, 식료품	0.73	0.93	0.93	-2,203	187	-1,595
담배	-	-	-	-	-	-
섬유	0.74	1.09	1.15	-3,802	-5,171	1,245
의복 및 모피	1.38	1.60	2.20	-4,396	-5,661	2,176
가죽, 가방, 마구, 신발	5.70	5.42	5.46	-15,432	-60,882	-11,330
목재 및 나무	1.10	1.40	1.33	-705	-1,192	-510
펄프, 종이	0.50	0.57	0.58	-493	-2	-601
출판, 인쇄, 기록매체	0.34	0.44	0.47	-382	698	-153
코크스, 석유, 핵연료	0.64	0.53	0.40	-95	206	-449
화합물, 화학제품	0.46	0.47	0.45	-991	509	-2,135
고무, 플라스틱	1.00	0.95	0.81	-1,892	3,991	-6,861
비금속광물	0.21	0.32	0.30	-445	-773	-49
제1차 금속	1.16	1.31	1.36	-2,106	71	-2,434
조립금속	0.90	1.43	1.29	-2,100	3,825	-291
기타 기계 및 장비	0.93	1.24	1.11	-3,777	2,485	-4,639
사무, 계산, 회계	0.03	0.15	0.07	-12	82	81
기타 전기기계, 전기변환	0.44	0.73	0.78	-710	1,754	1,462
영상, 음향, 통신	0.12	0.16	0.25	-495	23	1,399
의료, 광학, 시계	0.34	0.50	0.59	-234	159	298
자동차, 트레일러	0.36	0.41	0.54	-997	1,480	170
기타 운송장비	1.45	1.25	1.30	-1,492	5,444	-5,511
가구 및 기타	0.60	0.95	1.09	-1,210	-2,117	1,363
재생재료, 가공처리	0.98	1.10	0.37	-17	397	-373
계	1.00	1.00	1.00	-43,984	-54,487	-28,736

결론적으로 부산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分類되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생산 및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신발산업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퇴조함으로써 부산지역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産業을 조속히 육성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의 침체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부산지역 제조업 부문의 저누기증 변화 추이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의 잦은 산업분류 변경으로 인해 실증분석에 업종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제조업 부문의 변천과정을 분석해보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부산지역 제조업은 1960년대 초 국가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과 맞물려 기존에 발달해 있던 신발, 섬유, 합판 공업들이 발전하면서 도약기를 맞이하였고, 제조업의 전국비중이 17%대, 수출이 30% 가까이 차지한 1970년대 초까지를 성장기 및 전성기로 볼 수 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 들어 2차세의 석유가격 파동으로 海外環境이 악화되면서, 원자재 및 상품시장의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부산 제조업은 타격을 입고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였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부산지역이 편승하지 못하여 주변지역에 새로이 조성된 공단들과도 경제적, 산업적 聯關關係가 약화되면서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로는 한번도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속적인 衰落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68년 전국대비 166%에 이르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대 들어서서는 70%대로 떨어졌고, 한때 18%에 이르렀던 제조업 생산액 전국비중도 현재는 3%대로 하락, 유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浮沈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開發初期인 1960년대만 해도 부산지역에 다수의 특화산업이 출현하고 또 그들 산업들이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신발, 1차 금속, 운송장비산업 등 특화산업들의 지역 경쟁요인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 基盤을 둔 부산지역 제조업이 回生할 가능성은 점 점 희박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산지역 제조업이 침체를 거듭하게 된 까닭은 먼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부산지역 제조업이 낙후된 산업구조를 제때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低附加, 勞動集約的 산업구조가 고착화 된 점을 들 수 있다. 언급하였듯이 부산은 국가의 경제개발 초기에 신발, 섬유, 합판, 봉제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정부가 重化學工業 육성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부산은 기존의 경공업들이 팽창하던 시기여서 당장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과 수출확대를 꾀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國家는 1차 금속과 조선, 전자, 자동차 등 금속기계제품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부산은 섬유, 의복, 신발 같은 輕工業 비중이 확대되었고 1970년대 중반까지 전국대비 비중이 높았던 금속기계제품이 상대적으로 정체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역행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까지도 섬유와 의복, 가죽, 신발 등 3개 업종이 부산지역 종사자의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들 산업들의 비중이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4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업종 편중현상은 결국 이들 경공업 산업들의 성장과 쇠퇴가 곧 부산지역의 제조업 성장과 쇠퇴의 주기와 같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부산지역 제조업 침체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 초 정부가 처음으로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 工團이 조성되는 지역에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설립을 지원한 반면, 부산은 산업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서울과 동일하게 대도시로 분류하여「성장억제지역」으로 묶어 새로운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였다. 결국 시내에서 공장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시외로 이전해 나감으로써 부산지역 제조업의 침체를 부추겼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99년까지 1300여 기업체, 7만 여명이 시외로 이전하였는데 이 중 음, 식료품, 섬유, 의복, 종이, 인쇄제조업 같은 소비재공업업체는 12%인 반면, 화학, 고무, 나무, 비금속 광물, 제1차 금속 등 중간재 공업은 31% 정도이고, 자본재 공업인 기계조립금속 공업이 57%를 차지하여 重化學工業 부문이 압도적

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2000: 67)). 이러한 다수의 중화학공업 업체의 이전은 주변공단과의 산업적 연계성을 약화시켰고 부산지역 제조업 구조 고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도 이를 뒤늦게 깨닫고 1996년 7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부산지역을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1996년 이후 100여 기업이 시내로 다시 이전해 오고 있지만 이미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운용체제하에서 정부가 市長을 임명해 왔던 제도도 부산지역 제조업 침체를 가져온 또 다른 정책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63년부터 民選 市長전까지 정부가 임명한 부산市長의 재임기간이 1.9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임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 부임한 市長이 市의 산업구조와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未來 발전을 위해 중, 장기적 계획을 樹立, 執行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곧 중앙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에 市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확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임정덕 (1997: 12, 32)).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제조업이 침체하기 시작한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低附加, 勞動集約의 산업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조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였던 부산시 정책입안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부산지역 제조업을 주도하는 산업들의 성장성 문제이다. 이는 첫 번째로 지적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산업구조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1999년 현재 생산액 비중이 높은 산업들을 살펴보면 제 1차 금속, 섬유, 기타운송장비, 가죽 및 신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제 1차 금속은 철강이, 운송장비제조업은 造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산의 주종산업들은 부산의 輸出主從商品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수출 부진이 곧 부산지역 제조업 침체를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도산 기업이 계속 늘어나 정부가 1992년 신발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여 시설개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수출과 생산액, 종업원 규모는 계속하여 줄고 있다. 철강산업도 이미 세계적 供給過剩과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입국들의 자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성장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中國이 2005년까지 철강재 자급율을 95%로 끌어올리기 위해 投資를 확대하고 일본기업과의 합작도 검토하고 있어 미래에는 주요경쟁국으로 등장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造船도 몇 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경기산업으로 국내업체들의 수주량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설계기술과 선형개발, 제조기술이 떨어져 유조선 등 값싼 선박에 치중한 양적 우위로써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는 일본에 뒤지고 있다.

부산지역은 현재 제조업의 쇠퇴로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 과거 1960년대 산업구조 형태로 돌아갔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는 국내 다른 대도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도시의 탈산업화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산지역의 제조업이 향후 과거의 전성기 시대와 같은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도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부산지역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부산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無對策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제조업이 다양한 직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주고, 전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커 일정부분 도시 기능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호와 유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부산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신평, 장림공단과 녹산국가공단, 신호지방공단, 지사과학단지 등을 조성하여 企業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올 2001년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다시 국비 695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삼성전자 부산공장이 르노와 합작하여 자동차를 再生産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2조 2천만원의 生産誘發效果와 3만 8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환 (2000: 28)).

그러나 부산지역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인 산업구조 自體를 고도화시키지 않고는 지역의 미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시도 1999년에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신발, 섬유 패션, 수산 가공 등 5대 산업을 구조고도화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기계와 전자(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정밀기계공업 등 향후 성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의 産業構造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發表했었다. 그러나 신발과 섬유, 철강, 조선 등은 부산지역에서 오랫동안 발전해왔고, 타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첨단산업의 경우 울산, 포항, 김해, 창원, 양산 등 주변도시들이 이미 상당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산이 뒤늦게 유치, 발전시킨다면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지만 주변에 발전하고 있는 산업을 부산시가 또 다시 중복으로 유치, 육성해야 하는 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환동해축(부산, 울산-포항-강릉, 속초)과 환남해축(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 교차점에 위치하며, 10대 광역권 개발 중 부산, 울산, 경남권의 중추도시로써 역할을 맡게 되어있다. 이러한 장밋빛 계획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언급되던 내용이었지만 부산시가 실제로 주변지역 공단과 산업적 聯關關係를 갖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공단지역들이 단순히 부산의 항공, 항만, 도로 등의 시설만 이용하는데 그쳐 지금까지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부족한 시 재정을 투입하여 첨단산업들을 새로 유치하여 육성하기보다는 주변의 공단지역들에 발전한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변지역의 경제

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대시켜 이익을 창출하면서 동남권 중추도시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다.

둘째, 단기적이지만 부산이 이러한 산업구조의 高度化를 이루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역의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시켜 제조업부문의 추가적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 부산은 1960, 70년대 경공업이 확장될 때는 전국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지만 그 들 산업이 침체해 지금은 지역의 기업구조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은 영세한 규모와 경영능력 부족, 자금부족, 우수인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 할 능력이 부족함으로 항상 도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부산시도 중소기업들에 운전자금, 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하며,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과 창업보육센터 지원 확대, SOHO 육성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현재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여력이 없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상 세제지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釜山市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발산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듯이 중소기업 부문 지원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보다는 더 나은 배려와 세제혜택의 폭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공단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94년 공사가 시작된 녹산공단이 분양 후 입주기피로 아직도 비어있는데,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가 올 하반기에 착공되기로 계획되어있다. 더구나 사상과 신평공단에도 아직 빈자리가 많은데 정관산업단지를 또 조성하려 하고 있다. 빛더미에 올라있는 부산시가 이 공단들을 다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부산 市內에 이렇게 많은 공단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것인지 하는 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공장을 설립할 부지가 없어 공장이 市外로 이전해 나가면서 문제를 야기했지만, 반대로 공단을 너무 많이 조성해 놓아 입주할 企業이 없다면 이는 예산낭비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침체일로에 있는 부산지역 제조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뿐 아니라 부족한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중 지원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구조고도화 대상 산업들과 성장유망 산업들 모두를 보호, 육성하려는 계획보다는 현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발과 섬유, 조선 산업 등을 기술집약화, 패션산업화,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지원을 集中하고, 첨단산업들은 새로 유치하여 육성하기보다는 주변지역

에 이미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 강화를 통해 부산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지원도 현재와 같이 多方面, 多企業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축소시키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난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단 설립 문제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이미 조성한 공단들의 분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土地分讓價를 낮추고, 배후도로를 건설하여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며, 세제혜택을 넓혀서 분양을 높이는 노력이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계획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광공업 센서스보고서』, 1963, 1966.
- 경제기획원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 경제기획원 『韓國統計年鑑』, 각년호.
- 高鍾煥, 琴性根 「광복 50년 부산경제의 회고와 진로」, 『부산발전포럼』, 1995/7 8, 15-20.
- 金榮煥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부산발전포럼』, 2000/11 12, 28-31.
- 대한민국정부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 1982.
- 대한민국정부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 修正計劃』, 1987.
- 대한민국정부 『제4차 國土綜合開發計劃 (2000-2020)』, 2000.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론』, 1994.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도시론』, 부산학시리즈 4, 2000.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釜山經濟史』 1989.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 각년호.
- 부산직할시 『부산통계연보』, 각년호.
- 徐炳寅의 3인 「신발産業의 實態分析 및 競爭力 提高方案」, 『經營 經濟研究』, 제7권, 제1호, 釜山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1988, 1-113.
- 이영준, 임정덕 「釜山地域 産業構造變動과 地域生産性에 관한 研究」, 『經營 經濟研究』, 제5권, 제1호, 釜山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1986, 57-90.
- 임정덕 『지역경제분석 : 부산·부산권·동북아 경제』,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 임정덕 「부산경제 50년 - 회고 및 발전 방향」, 한국은행 부산지점, 『21세기를 향한 부산지역경제발전방향』, 제4회 지역경제세미나, 1996, 15-55.
- 원희연 「釜山經濟의 構造的 問題와 改善方向」, 경제학논집, 제5권 제1호, 한국동남경제학회, 1996.
- 鄭起龍, 河承逸, 「부산권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시리즈 93-10, 동남은행, 지역개발연구실, 1993.
- 정근식 외 『지역발전과 기업전략』,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河態守, 「釜山輸出의 當面課題와 그 活路」, 『經營 經濟研究』, 제14권, 제1호, 釜山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1995, 135-143.
- 한국은행 『經濟年監』, 통계편, 1955.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연보』, 각년호.
- 황한식 「부산 지역사회의 현실과 진로」, 지역사회연구 창간호, 지역사회연구회, 1993, 1-9.
- 崔海君 『釜山 700年, 그 영욕의 발자취』, 地平, 1997.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각년호.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0.
- 통계청 부산통계사무소 『통계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2000 .